“혜암 대종사 유훈 이어가겠습니다”

해인사, 혜암 대종사 추모 다례
열반 22주기 맞아 대적광전서
원각 스님, 문도, 신도 등 참석
2001년도 대종사 봉축법어 합송
“수행 강조한 가르침 받들겠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혜암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는 대중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 다례재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전 원로의장 세민 스님, 혜암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신도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은 해인사 비림에서 혜암 대종사의 부도전을 참배했다. 이어 죽비 삼배에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부도탑돌이를 했다.

대적광전에서의 추모 다례재는 거불, 방장스님 헌향 및 헌다, 종사 영반, 추모 입정, 육성 법어, 대중 헌화, 행장 소개, 문도대표 인사, 공지사항, 회향 게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은 2001년 부처님 오신날 법어를 합송하며 혜암당 성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 대표 성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혜암 스님은 항상 인욕 수행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대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을 많이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며 “저희 문도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혜암 문도회는 혜암당 성관대종사 22주기 추모다례재를 맞아 해인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자운·우봉·보문·도우·법전·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공부 잘하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편안히 열반에 들었다. 세수는 82세, 법랍은 56년이다.

“갑진년엔 가정에 불보살 가피 가득하길”

금산사 · 선운사 해넘이 해맞이 법회 봉행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와 제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계묘년 한해를 정리하고 갑진년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해넘이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해 바다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김제 망해사에서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해넘이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갑진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해지기를 축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아중요양병원 MOU

1월 4일 협약 체결식 개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가 아중요양병원이 상호협력하여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스님)과 (사)붓다, 전주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은 1월 4일 아중요양병원 세미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봉사와 의료봉사를 함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가, 아중요양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태고종 종도들과 (사)붓다 회원들과 지역사회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밀양 표충사, 삼성각 낙성·탱화 점안

지난해 12월 28일 법회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삼성각 낙성법회와 칠성탱화, 독성탱화, 산신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지난해 12월 28일 표충사 삼성각에서 봉행된 낙성법회와 탱화 점안법회는 통도사 백련암 감원 원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증명법사 원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념으로 기도해 중국 황제의 꿈을 그린 화공 장승요의 일화를 소개하고 “내 생명을 다 바쳐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와 우주가 하나가 됐을 때 지금 장승요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절대 경지까지 이르렀을 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사암연,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 재개한다

1월 18일~22일 KBS 울산홀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를 재개한다.

오는 1월 18일~22일까지 매일 오후 2시 KBS 울산 홀에서 열리는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는 자비도량참법 10권 38장을 5일에 걸쳐 독송하게 된다.

나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모두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마저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는 울산불교를 이끌어 갈 신심 있는 원력불자들이 동참한다.

불자들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한 참회의 절을 한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일념으로 지극정성 염원하다 보면 소원성취와 재난을 면하는 공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4년간 이어진 익산 관음사 관음회 원력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 지속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권유로
참회와 불교중흥 발원하며 정진



익산 관음사 관음회 회원들.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 스님) 관음회가 14년간 매월 1차례 모여 참회 기도를 봉행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익산 관음사 관음회(회장 김덕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관음재일이면 관음사 법당에 모여 자비 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익산의 대표적인 전법 도량인 관음사에 현 주지인 덕림 스님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관음회의 기도는 매회 3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관음회장 김덕순 불자를 비롯해 이 명옥 불자의 인례로 봉행되는 관음회 기도 정진은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3시간 정도 진행된다. 초기에는 3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10년을 넘기면서 동참 불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는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만은 잃지 않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처음 정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웃 종교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가진 익산의 특성을 고려해 불자들이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정진을 하며 지역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정진하라는 현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초기 3년간은 〈법화경〉 독송 법회를 진행했고 1년간은 〈금강경〉 독송 법회를 진행했으나 10년 전부터는 자비도량참법을 바탕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절을 하는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참회 법회를 통해 불자들 스스로 현생에서 쌓은 죄업을 씻어 버리고 관음사가 지역의 전법 도량으로 발전하고 불교가 왕성했던 옛 익산지역 불교를 회복하는 염원을 안고 정진하고 있다.

김덕순 회장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을 지키는 도반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음사는 작은 도량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자기 수행과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24학년도 제33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양성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3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0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벽산 혜암

포교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진각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총무부장 진공
경기종무원장 혜암 군산종무원장 덕일 재무부장 지안
충청종무원장 진산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연화부장 정해
경기서부국장 보성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